

대한상의 브리프

조선비즈 손덕호 기자



제86호 2018년 12월 24일



편집자주

저출산·고령화, 구조적 경제저성장,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 등 커다란 경영환경 변화는 우리기업에게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접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제2의 전성기를 맞으며 재도약하고 있는 일본 기업의 혁신 노력과 장기침체의 늪에 빠진 일본 경제를 살리기 위한 일본 정부의 강력한 경기부양책에서 우리기업과 정부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단서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외부 필진 칼럼은 대한상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제2 전성기’ 만든 일본 기업과 정부의 승부수

“소니의 변혁은 계속된다.

앞으로의 목표는 지속적으로 높은 수익을 올리는 기업이 되는 것이다.”

지난 6월 19일 도쿄에서 열린 소니 주주총회에서 요시다 겐이치로 최고경영자는 회사 창립 이래 가장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실제로 2017회계연도 소니의 영업이익은 7348억 엔으로 과거 최고치를 20년 만에 갈아치웠다. 순이익은 4907억 엔을 기록했다. 전년과 비교해 영업이익은 155%, 당기순이익은 570% 늘었다. 불과 몇 해 전까지 소니는 실적이 저조했기 때문에 이번 발표는 더 큰 의미가 있다. 소니는 2013년엔 1283억 엔, 2014년엔 1259억 엔의 순손실을 냈었다.

일본 기업의 이익 창출 능력은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지난 5월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도쿄증권거래소 1부 상장기업(금융업 제외)의 자기자본이익률(ROE)이 10.4%로 전년보다 2%포인트 상승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기업의 ROE가 10%를 넘은 것은 1982년 통계 작성성이 시작된 이후 처음이다. 일본 기업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자본을 효율적으로 사용했다는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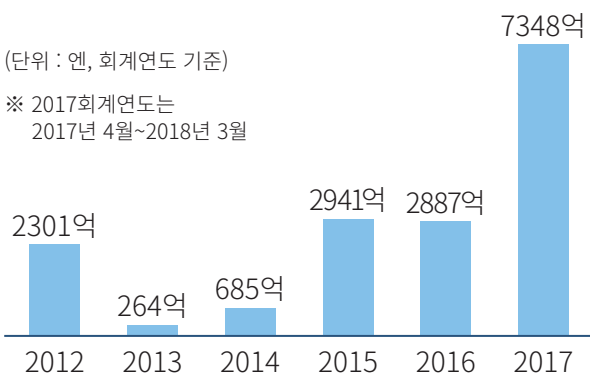
사업구조 혁신으로 수익성 개선

소니의 부활에는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구조를 재편한 것이 주효했다. 20년 전의 소니와 지금의 소니는 전혀 다른 회사다. 과거 소니는 휴대용 음악 플레이어, 노트북, 휴대전화, 게임기를 만들어 팔았다.

이 중에서 지금까지 주력 사업 분야로 남아있는 것은 플레이스테이션뿐이다. 비록 스마트폰 시장에서 소니는 애플과 삼성전자, 중국 브랜드에 밀렸지만, 스마트폰에 반드시 필요한 이미지 센서의 시장 점유율은 44.5%로 세계 1위를 기록했다.



[늘어나는 소니 영업이익]



(단위 : 엔, 회계연도 기준)

※ 2017회계연도는 2017년 4월~2018년 3월

※ 자료 : 일본 금융청 전자공시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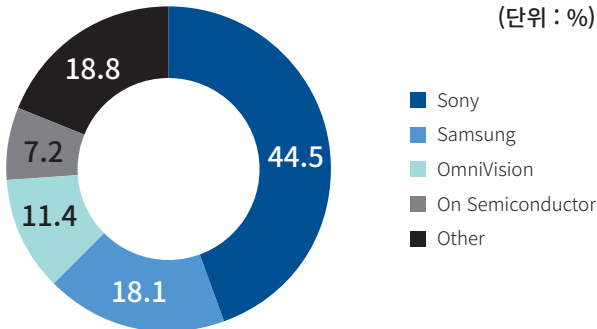
대한상의 브리프

대한상공회의소가 회원님께 드리는 최신 경제정보



[CMOS 이미지 센서의 시장 점유율]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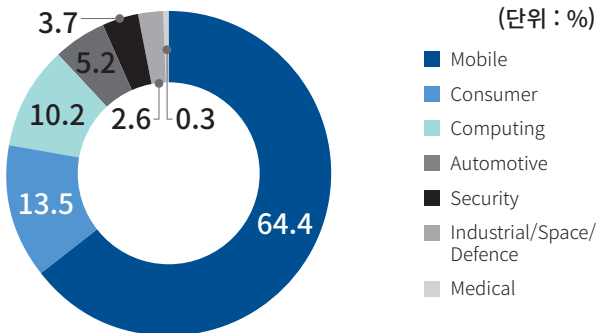


※ 자료 : 시장자료,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CMOS 이미지 센서의 어플리케이션별 비중]

(단위 : %)



※ 자료 : Yole Development,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

※ CMOS 이미지 센서 : 휴대전화 카메라 및 디지털 카메라 등에 사용되는 영상 소자 부품인 이미지 센서의 일종으로, 상보성 금속 산화막 반도체(CMOS)를 이용한 센서

히라이 회장은 2012년 사장에 취임한 후 혹독한 구조 조정을 실시했다. 빌딩 등 보유 자산을 매각하고, 노트북처럼 과거 소니를 대표하던 사업마저 매각했다.

대신 2015년 4000억 엔(약 4조 원)을 이미지 센서 사업에 투자했다. 이미지 센서는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자율주행, 4차 산업혁명 등을 이루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부품이다.



[미쓰비시전기 스마트 팩토리 사업]



※ 자료 : 파이낸셜투데이 이견업 기자

히타치제작소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에 7889억 엔의 순손실을 냈다. 당시 환율로 10조 원 정도의 어마어마한 금액이었다. 사상 최악의 적자를 기록한 후 히타치는 경영진을 교체하고 핵심이 아닌 PDP, LCD패널, LCD TV와 같은 변동성이 큰 사업에서 철수했다.

연간 약 600억 엔의 이익을 내던 하드디스크드라이브(HDD) 사업도 미래 주력분야가 아니라고 보고 매각했다. 휴대전화 사업도 접었다.

대한상의 브리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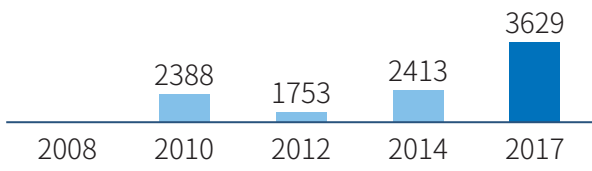
대한상공회의소가 회원님께 드리는 최신 경제정보

이후 사업구조를 정보통신, 전력, 사업 인프라 중심으로 변경했다. 지난 5월 발표된 2017년 실적은 사상 최대 흑자였다. 매출액 9조 3686억 엔, 영업이익 7146억 엔, 당기순이익 3629억 엔을 기록했다.



[부활에 성공한 히타치제작소]

(단위 : 억엔)



※ 3월 결산 회계연도 기준 순이익

-7873

※ 자료 : 히타치

파나소닉은 가전 부문에서 한국 등 아시아 기업에 밀려 TV 제조 등을 고수하는 대신 자동차 배터리와 에너지 시스템 등 미래 지향적인 산업에 도전했다. 자동차 관련 사업 비율은 2012년 13.7%에서 지난해 21.3%로 늘었고, 같은 기간 TV 제조 부문은 7.2%에서 4.2%로 감소했다. 지난해 파나소닉은 전년보다 37% 증가한 3805억 엔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전기차 배터리 제조, 자율주행 전자제품]



※ 자료 : 녹색경제

정부는 기업 옥죄던 6중고 해소

기업들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벌이는 동안, 일본 정부는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여건을 만드는 데 주력했다. 아베 신조 일본총리는 2012년 말 취임 후 과거 기업을 옥죄었던 이른바 '6중고[△엔고 △높은 법인세율 △자유무역협정(FTA) 대응 지체 △극심한 노동규제 △엄격한 환경규제 △비싼 전력요금]' 해소에 힘을 쏟았다.

6중고는 기업 경영자들이 외국과 비교해 일본이 사업하기에 불리하다고 지적한 6가지 항목이다.

1) 엔저 정책으로 기업실적 개선 유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민주당 정권 3년간 극심한 엔고로 일본 기업과 경제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2012년 엔화 환율은 1달러당 70엔대에서 거러될 정도였다.

아베 총리는 취임 후 일본은행이 통화량을 대량 공급하는 방식으로 엔화 가치를 하락시켜 엔저를 유도했다. 엔저는 물가를 상승시켜 소비를 다소 악화시키지만, 수출증가와 기업실적 개선 효과가 있다. 엔저에서 비롯된 기업실적 개선 덕에 일본 경기는 2012년 12월 이후 계속 좋아지고 있다.

2) 법인세율 인하해 기업수익성 개선 지원

2011년 기준으로 일본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40.69%에 달해, 독일(29.41%), 한국(24.2%) 등보다 훨씬 높았다. 법인세 이외에 기업이 내야 할 여러 명목의 세금을 전부 더한 수치다. 높은 법인세율은 해외 자본의 투자를 막고, 자국 기업이 법인세가 낮은 나라에 투자하게 만든다.

아베 정권은 출범 후 기업의 조세 부담을 낮춰, 올해엔 실질적인 세율을 29.74%로 인하했다.

3) CPTPP 체결로 FTA 효과 극대화

일본은 한국보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서 뒤쳐져 있었다. 한국이 미국·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동안 일본은 주요 경제 대국과 FTA를 체결하지 못했다. 그랬던 일본은 **지난 3월 다자간 무역협정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통해 한 번에 많은 국가와 FTA를 체결하는 효과를 냈다.**

4) 노동시장 규제완화로 기업활력 유도

노동시장도 제조업에 인력 파견이 금지돼 있는 등 경직돼 있었다. 정부는 **파견 노동자 규제를 풀어 노동시장을 완화했다.** 한국에선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해 혼란을 겪고 있지만, 일본은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를 도입했다. 금융회사 딜러나 컨설턴트, 연구직 등 연 수입 1075만 엔 이상의 고소득 전문직은 ‘주 40시간’ 등의 노동시간 규제를 받지 않는다.

5) 환경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부담 최소화

아베 정부는 과거 민주당 정권에서 설정한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대폭 낮췄다. **중전 목표는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보다 25% 감축하겠다’**는 것이었다. 새 목표는 1990년 배출량보다 3% 증가하게 되는 수치다. 게다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게 아니라, 삼림을 조성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겠다는 것이 세부 계획의 골자다.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한 것이다.**

6) 전기요금 인하해 기업부담 완화

일본은 2011년 3월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 발전을 정지했고, 부족한 전력을 화력 발전 등으로 대체하면서 전기요금이 크게 올랐다.


아베 정부는 원전을 재가동해 전기요금을 낮췄다. 원전 재가동은 고이즈미 전 총리까지도 ‘원전 제로’를 주장할 정도로 반발이 심했지만, 반대 여론을 물리치고 내린 결론이었다.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일본 기업들은 **혹독한 사업구조 변경과 기업혁신을 통해 역경을 딛고 부활했다.** 소니는 과거 명성을 쌓았던 노트북과 휴대용 플레이어를 더 이상 만들지 않지만, 스마트폰에 꼭 필요한 이미지 센서로 이익을 낸다.

미쓰비시전기는 가전에서 스마트 팩토리 사업으로 중심을 이동했고, 파나소닉도 가전 사업 대신 자동차 배터리와 에너지 시스템 사업을 육성했다. 히타치제작소는 변동성이 큰 디스플레이 사업에서 철수했고, 이제 사업구조의 중심은 정보통신과 인프라다.

기업이 뼈를 깎는 노력을 하는 동안, 일본 정부는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6중고 해소에 힘을 보탰다.** 2014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4년간 엔화 가치는 1달러에 102엔에서 110엔대로 하락했고, 법인세 실효세율은 34.62%에서 29.74%로 낮아졌으며, 무역 면에서도 11개국이 참여한 TPP가 발효를 앞두고 있다. 또, 원전 재가동으로 발전원가가 하락하면서 전기요금을 낮추는 전력회사가 나오고 있다.

일본 정부는 기업 경영 장애물을 치워주고, 기업은 혁신으로 지금의 일본 경제를 만들었다. 수년간의 민관 협력으로 강한 경제를 만든 것이다. **일본 기업이 겪었던 ‘6중고’ 중 상당 부분은 최근 한국 기업도 겪고 있다. 과감한 규제 개혁으로 기업 경영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킨 일본의 경험에서 배워야 할 때다.** 

국내·외 경제지표

2018년 12월 24일 기준

1. 국내·외 경제성장률

(단위: %)

	2016	2017 ^(E)	IMF		OECD	
			2018 ^(P)	2019 ^(P)	2018 ^(P)	2019 ^(P)
한국	2.8	3.1	2.8	2.6	2.7	2.8
세계	3.2	3.7	3.9	3.9	3.7	3.7
미국	1.5	2.2	2.9	2.5	2.9	2.7
중국	6.7	6.9	6.6	6.2	6.7	6.4
일본	1.0	1.7	1.1	0.9	1.2	1.2
EU	2.0	2.4	2.0	1.9	2.0	1.9

* E : 잠정치(Estimate) / P : 예상치(Projections)

2. 환율·유가¹⁾

(단위: 원(환율), 달러(유가))

	2016	2017	'18.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원/달러	1,161	1,131	1,093	1,123	1,121	1,121	1,131	1,129
원/엔(100엔)	1,068	1,009	993	1,008	1,010	1,003	1,003	996
원/위안	174.4	167.5	169.1	167.1	163.7	163.4	163.3	162.7
원/유로	1,283	1,276	1,275	1,312	1,296	1,305	1,300	1,282
유가(Dubai)	53.8	53.2	73.6	73.1	72.5	77.2	79.4	65.6

3. 산업지표

(단위: %(전년동기대비))

	2016	2017	'18.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산업생산	3.0	2.3	0.2	1.4	1.6	-4.8	6.7	-
소매판매	3.9	1.9	4.0	5.5	5.7	0.4	5.0	-
설비투자	-1.3	14.1	-14.7	-10.1	-11.3	-19.1	9.4	-
수출	-5.9	15.8	-0.3	6.1	8.7	-8.2	22.7	4.5
수입	-6.9	17.8	11.0	16.4	9.4	-1.6	28.1	11.4

1) 환율은 월 평균 기준, 유가는 기말 기준